

간호대학생의 소명 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과 행복감 간의 관계: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 현 숙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교수

Associations of Vocational Call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Commitment with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Major Commitment

Park, Hyun Sook

College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impacts of vocational call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commitment on nursing college students' happiness. This study also was conducted to explore major commitment's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call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commitmen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346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in November, 2017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IBM SPSS 19.0. **Results:**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33.0% of varian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happiness ($F=41.44, p<.001$). Significant factors were emotional intelligence ($\beta=.30, p<.001$), grade ($\beta=.20, p<.001$), major commitment ($\beta=.18, p=.002$), and vocational calling ($\beta=.11, p=.035$). Moreover, major commitment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vocational calling and happiness. Major commitment also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college students' happiness can be increased through strategies aimed at increasing vocational call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commitment.

Key Words: Happiness; Occupations; Emotional intelligence; Students, Nurs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에게 행복(happiness)은 중요한 삶의 목표 중 하나이며,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을 반

영하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되고 있다[1]. 인지적 요인에서의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인 만족감인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말하고, 정서적 요인에서의 행복은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반응과 부정적인 정서

주요어: 행복, 직업, 감성지능, 간호학생

Corresponding author: Park, Hyun Sook <https://orcid.org/0000-0002-4486-9053>
College of Nursing, Daegu Catholic University, 33 Doyugongwon-ro 17-gil, Nam-gu, Daegu 42472, Korea.
Tel: +82-53-650-4827, Fax: +82-53-650-4392, E-mail: parkhs@cu.ac.kr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Daegu Catholic University, 2017.

Received: Oct 1, 2018 | Revised: Nov 3, 2018 | Accepted: Nov 22,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반응을 포함한다[1]. 행복의 인지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설정한 기준과 현재의 삶의 상태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인지적인 판단을 의미하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지각한 삶의 여건을 자신이 설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또는 영역별로 평가하여 그 결과가 긍정적일 때 삶의 만족이 높고, 행복하다고 느낀다[2]. 행복의 정서적 요인인 정서 반응은 일반적으로 무의식적 동기나 생리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 인지적 반응은 주로 삶의 가치관 또는 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고 할 수 있다.

일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정도는 16.36 ± 8.19 점[3]으로, 일 대학 교양강좌를 수강 중인 일반대학생의 행복감 정도 16.77 ± 8.97 점[4]에 비해 조금 낮은 편으로 보고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진학동기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적성과 흥미'가 28.76%, '전문직이어서'가 8.41%인 반면, '취업률이 높아서'가 37.17%, '부모님과 주위의 권유'가 15.49%, '고교성적 고려'가 9.29%로[5], 최근 간호대학생은 본인의 적성과 흥미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취업의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기대와 본인의 의견보다 부모의 권유 혹은 성적에 대한 고려로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입학동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취업률, 주변의 권유, 성적 등과 같은 동기로 간호학과에 진학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확신이 적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학습량에 대한 부담과 임상실습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과중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6].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입학 동기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취업보장'의 동기를 가진 학생이 '전문적 특성'의 동기를 가진 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7]된 바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긍정적 정서, 감사성향, 일상생활에서의 몰입,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낙관성[3,7,8]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사회적 지지[3]와 같은 환경적 특성, 전공만족도[3]와 같은 전공 관련 특성 및 성적, 경제상태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7]이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간호학과 진학동기 등을 고려할 때 행복감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로 간호의 전문성과 관련된 의미 추구하고 몰입 추구하고 관련된 의지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변인

으로 먼저 소명의식을 고려하였다. 소명(calling)이란, 자신이 선택한 일에 충만감을 느끼고 헌신을 하도록 하는 목적의식이자 일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9]. 따라서 소명의식은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게 하고 자신이 선택한 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10]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 나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심리적 적응력을 가질 수 있고[11], 삶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12].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이 소명의식이 높을 때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의미 부여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간호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과 아울러 행복감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결정하는 변인으로 감성지능을 고려하였다.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13].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장애나 곤란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북돋우어 상황을 극복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동기화시키며,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14]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따라서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성을 잘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여[13] 주어진 역할에 몰입하고 나아가서 행복감이 높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과 결정하는 변인으로 전공몰입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의지적 활동 중 몰입 추구는 몰입(flow) 개념[16]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행복 추구를 위한 인간의 의지적 활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몰입이란, 인간이 어떤 활동에 깊게 심취해 있는 심리적 상태로, 이 상태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고, 그 활동에 집중이 모아져 있으며, 이러한 몰입경험 이후에는 활력이 생길 수도 있어[12] 몰입 추구를 통한 의지적 활동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행복의 범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공몰입이란, 전공분야에 대해 심리적으로 빠져 있는 애착의 상태를 의미하며[17], 대학생의 몰입 수준은 대학생활 적응과 같은 다양한 성과들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18]. 특정분야에서 몰입 경험은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16],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은 행복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몰입은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16],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9],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감성지능이 개인의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15], 감정의 조절, 활용 및 자기 동기화를 시킬 수 있는 속성이 있어[14], 특정분야에서 몰입을 높일 수 있고[16], 이로 인한 몰입 경험은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16],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과 행복감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행복감에 대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와 간호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복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과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행복감과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행복감에 대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과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개의 광역시와 1개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3개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며 서면 동의한 자이다. 연구의 주요 변인에 전공몰입이 포함되어 있고, 간호학과에서 3, 4학년에 주로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3, 4학년으로 제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예상 표본 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효과 크기 0.10,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관련 변인의 수를 12개로 설정하였을 때 270명이었으나, 지역, 학년, 성별,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총 350명을 목표 인원으로 하고, 학년과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학급 단위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명을 제외하고 총 346명(99.0%)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행복감

행복감은 Suh와 Koo [20]가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선행연구[18]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대학생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연령 집단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바 있다. 총 9개 문항으로 3개의 하위척도, 즉 삶의 만족감 3문항, 긍정적 정서 3문항, 부정적 정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행복감 점수는 삶의 만족감 점수와 긍정적 정서 점수를 합한 후 부정적 정서 점수를 뺀 점수로 최저 -15점에서 최고 3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Suh와 Koo [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2)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Dik 등[21]이 개발한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를 Sim [22]이 번안 및 수정한 한국판 소명의식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선행연구[22]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우리나라 대학생의 소명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로 알려진 바 있다. 총 12문항으로 3개의 하위척도, 즉 초월적 부름 4문항, 목적과 의미 4문항, 친사회적 지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im [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3)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 [13]가 개발하고, Jung [23]이 변안한 한국판 감성지능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선행연구 [23]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대학생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연령 집단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바 있다. 총 16문항으로 4개의 하위척도, 즉 자기감성이해 4문항, 타인감성이해 4문항, 감성조절 4문항, 감성활용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ng [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4) 전공몰입

전공몰입은 Jackson과 Marsh [24]가 개발한 Flow State Scale을 Kim [25]이 우리나라 대학생 실정 적합하게 이론과 실습 수업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한 전공수업 중 몰입경험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Kim [25]의 연구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 총 27문항으로 4개의 하위척도, 즉 정서적 요인 10문항, 통제감 및 행동적 요인 5문항, 지적 호기심 8문항, 시간 흐름의 변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2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5)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종교유무, 성적, 주거형태, 부모와의 대화시간, 통학시간, 통학수단, 아르바이트 유무에 대한 9문항을 포함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7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과 학년 및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편의 표집방법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일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CUIRB-2017-0072)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 설명문을 배부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소요시간을 설명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연구 중 어느 때라도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한 후 독립적이며 자발적

의사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연구보조자가 강의실을 방문하여 연구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설문 도구는 저자의 사용 허락 승인 후 자료수집에 이용되었다.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에 설문내용이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정보와 조사된 자료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진 정보의 이용기간을 기재하고, 연구로부터 얻어진 연구대상자에 관한 정보가 수집, 기록, 이용, 보관, 폐기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설문이 끝난 후 대상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보조자가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분리하여 바로 회수하였고, 설문지 작성시간은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정도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전공몰입 및 행복감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선형회귀분석(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소명의식, 감성지능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정을 위하여 Baron과 Kenny[26]의 매개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Sobel test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여학생이 86.7%, 남학생이 13.3%였고, 3학년생이 48.3%, 4학년생이 51.7%였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71.4%, 있는 경우 28.6%였다. 학점이 3.0 이상에서 3.5 미만이 4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5 이상에서 4.0 미만이 39.9%였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

게 거주하는 경우가 57.8%로 가장 많았고, 자취가 25.1%, 기숙사가 17.1%였다. 하루 동안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인 학생이 41.3%로 가장 많았고, 30분 이상에서 60분 미만인 39.9%, 60분 이상이 18.8%였다. 통학시간이 30분 이상에서 60분 미만인 30.1%로 가장 많았고, 10분 이상에서 30분 미만인 25.1%였다. 통학수단은 대중교통이 62.7%로 가장 많았고, 도보가 27.2%였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 53.5%로 하고 있는 학생 45.5%보다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학년, 부모와의 대화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행복감 정도는 4학년생이 3학년생보다 높았으며($t=5.78, p<.001$),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하루에 60분 이상인 학생이 30분 미만인 학생보다 높았다($t=3.57, p=.029$). 성별, 종교, 학점, 거주형태, 통학시간, 통학수단 및 아르바이트 유무에 따라서는 행복감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대상자의 행복감과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 간의 관계

대상자의 행복감과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먼저 대상자의 행복감은 소명의식($r=.36, p<.001$), 감성지능($r=.48, p<.001$) 및 전공몰입($r=.45,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소명의식은 감성지능($r=.39, p<.001$), 전공몰입($r=.52,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감성지능과 전공몰입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56, p<.001$) (Table 2).

3.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일반적 특성 중 행복감

Table 1. Differences in the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Women	300 (86.7)	14.42±4.69	1.63	.105	
	Men	46 (13.3)	15.62±4.60			
Grade	3rd	167 (48.3)	13.14±4.78	5.78	< .001	
	4th	179 (51.7)	15.93±4.21			
Religion	Have	99 (28.6)	15.23±4.37	1.70	.091	
	Have not	247 (71.4)	14.32±4.81			
Credit	≥4.0	39 (11.3)	14.28±5.10	0.59	.624	
	3.5~3.9	138 (39.9)	14.94±4.93			
	3.0~3.4	143 (41.3)	14.46±4.42			
	<3.0	26 (7.5)	13.81±5.01			
Types of residence	Home	200 (57.8)	14.42±4.66	1.93	.147	
	Rental house	87 (25.1)	15.39±4.71			
	Dormitory	59 (17.1)	13.97±4.76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min)	<30 ^a	143 (41.3)	13.83±4.51	3.57	.029	a > c
	30~59 ^b	138 (39.9)	14.91±4.59			
	≥60 ^c	65 (18.8)	15.55±5.15			
Duration of commuting to school (min)	<10	77 (22.3)	15.00±4.77	0.56	.639	
	10~29	87 (25.1)	14.76±4.22			
	30~59	104 (30.1)	14.52±4.92			
	≥60	78 (22.5)	14.06±4.86			
Modes of commuting to school	Walking	94 (27.2)	14.91±4.91	0.49	.688	
	Bus/Subway	217 (62.7)	14.50±4.65			
	Car	28 (8.1)	14.57±4.72			
	Others	7 (2.0)	12.86±3.72			
Part-time job	With	161 (46.5)	14.66±4.36	0.28	.784	
	Without	185 (53.5)	14.52±4.99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과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가변수 (dummy variable)로 변환하였다. 이들 변수와 행복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및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가 .56~.95로 기준인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도 1.05~1.76으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Durbin-Watson 값이 2.10으로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어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였고,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가정도 만족하여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특이값을 진단하기 위해 Cook's distance 값을 확인한 결과, 1.0을 초과하지 않아 회귀식의 기본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고, 회귀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3), 회귀모형의 행복감 설명력은 33.0%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41.44, p<.001$). 감성지능, 학년, 전공몰입 및 소명의식이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감성지능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beta=.30, p<.001$).

4. 소명의식, 감성지능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

소명의식, 감성지능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전

공몰입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Baron과 Kenny [26]의 매개 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소명의식과 행복감에 대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단계 검증에서 소명의식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명의식($\beta=.52, p<.001$)이 전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2단계에서 소명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36,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소명의식과 매개변인인 전공몰입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인 소명의식($\beta=.17, p=.002$)과 매개변인인 전공몰입($\beta=.36, p<.001$) 모두 종속변인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그리고 소명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beta=.36, p<.001$)의 회귀계수보다 3단계의 회귀계수($\beta=.17, p=.002$)가 감소하였다. 이는 Baron과 Kenny [2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모두 만족하는 결과이며, 전공몰입이 소명의식과 행복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aron과 Kenny [26]의 매개 회귀분석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a=1.06, Sa=.09, b=0.11, Sb=.02$),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4.98, p<.001$).

다음으로 감성지능과 행복감에 대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단계 검증에서 감성지능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성지능($\beta=.54, p<.001$)이 전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2단계에서 감성지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48,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감성지능

Table 2. Relationships among the Vocational Calling, Emotional Intelligence, Major Commitment, and Happiness of Subjects (N=346)

Variables	Vocational calling	Emotional intelligence	Major commitment	Happiness
	r (p)	r (p)	r (p)	r (p)
Vocational calling	1			
Emotional intelligence	.39 (<.001)	1		
Major commitment	.52 (<.001)	.56 (<.001)	1	
Happiness	.36 (<.001)	.48 (<.001)	.45 (<.001)	1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the Happiness of Subjects (N=346)

Predictors	B	SE	β	t	p
Emotional intelligence	0.20	0.04	.30	5.59	<.001
Grade [†]	1.86	0.43	.20	4.36	<.001
Major commitment	0.06	0.02	.18	3.13	.002
Vocational calling	0.07	0.03	.11	2.12	.035

$R^2=.33, \text{Adj. } R^2=.32, F=41.44, p<.001$

[†]Dummy variables (reference=3rd).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Major Commitment on Happiness of Subjects

(N=346)

Step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Adj. R ²	F (p)	Sobel test	
									z	p
1	Vocational calling	Major commitment	1.06	0.09	.52	11.42 (<.001)	.27	130.42 (<.001)		
2	Vocational calling	Happiness	0.22	0.03	.36	7.19 (<.001)	.13	51.67 (<.001)		
3	Vocational calling	Happiness	0.11	0.04	.17	3.09 (.002)	.22	49.66 (<.001)	4.98	<.001
	Major commitment	Happiness	0.11	0.02	.36	6.45 (<.001)				
1	Emotional intelligence	Major commitment	1.21	0.10	.54	12.61 (<.001)	.31	159.02 (<.001)		
2	Emotional intelligence	Happiness	0.32	0.03	.48	10.10 (<.001)	.23	101.94 (<.001)		
3	Emotional intelligence	Happiness	0.22	0.04	.33	5.92 (<.001)	.27	65.66 (<.001)	11.61	<.001
	Major commitment	Happiness	0.82	0.02	.27	4.78 (.007)				

과 매개변인인 전공몰입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인 감성지능($\beta=.33, p<.001$)과 매개변인인 전공몰입($\beta=.27, p<.001$) 모두 종속변인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그리고 감성지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beta=.48, p<.001$)의 회귀계수보다 3단계의 회귀계수($\beta=.33, p<.001$)가 감소하였다. 이는 Baron과 Kenny [2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모두 만족하는 결과이며, 전공몰입이 감성지능과 행복감 간에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몰입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a=1.21, Sa=.10, b=0.82, Sb=.02$),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11.61, p<.001$)(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과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소명의식, 감성지능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전공몰입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정도를 측정된 결과, 평균 14.58 \pm 4.70점(여학생 14.42 \pm 4.69점, 남학생 15.62 \pm 4.60점)으로 가

능한 점수 범위인 -15~39점에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과 Park [3]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Kim과 Park의 연구[3]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행복정도가 약간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대상자가 3, 4학년으로 제한된 것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한 일반대학생보다 낮은 수준이어서[4],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이 일반대학생보다 더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3,7]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반복연구와 아울러 3, 4학년생을 중심으로 한 행복감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지능, 학년, 전공몰입, 소명의식이었고, 이들 변인에 의한 행복감의 설명력은 33.0%였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결과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 감성지능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건전문직 관련 학과 여대생의 감성지능이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13]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성을 잘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여[13],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28], 어떤 장애나 곤란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북돋우어 상황을 극복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동기화시킬 수 있으므로[14], 미래의 간호사를 준비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필요한 역량이다. 아울러 감성지능은 교육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29]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임상실무에서 필요한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감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이 학년이었고, 4학년 학생보다 3학년 학생의 행복감이 낮았다. 이는 학년에 따라 행복감 정도가 근소한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3,7]와는 상반된 결과이므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세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전공몰입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이 몰입 추구를 통해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30]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몰입이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결정요인이었다고 보고한 Jo와 Park [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전공몰입 경험은 행복감 증진뿐만 아니라, 진로태도 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24]는 점을 감안한다면,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소명의식도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높은 심리적 적응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11], 행복의 인지적 요인에서 해당하는 삶의 만족도 향상과도 관련이 있다[15]는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에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결과 전공몰입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몰입이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9]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의 향상은 행복감 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공몰입을 통해 행복감 증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향상이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타인과 조직의 이익에 기여할 헌신적 태도가 향상될 때, 전공몰입의 경험으로 학문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보다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행복감 증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감

성지능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결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성지능 역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공몰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행복감 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북돋우어 스스로를 동기화시키면[14] 전공몰입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서 행복감 증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을 하였으므로 지역적인 특성을 배제하지 못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전공몰입 및 행복감에 대한 자가 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추후 보다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포함시킨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3,7,8]와는 달리 간호의 전문성과 관련된 의미 추구와 몰입 추구와 관련된 의지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행복감에 대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간호대학생의 진로 지도와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전략 개발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과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행복감에 대한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에 대한 이해도와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은 소명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성지능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여 소명의식을 강화하고 감성지능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행복감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전공몰입을 높여 행복감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ORCID

Park, Hyun Sook <https://orcid.org/0000-0002-4486-9053>

REFERENCES

- Diener E.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994;31(2):103-157. <https://doi.org/10.1007/BF01207052>
- Kwon SM. *Positive psychology*. 1st ed. Seoul: Hakjisa; 2008. 140 p.
- Kim JY, Park HS.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 17(1):545-559.
- Kim JY, Ko YG. The moderating effect of happiness on the relation between mental disorder and suicidal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1;11(4):827-835. <https://doi.org/10.17315/kjhp.2011.16.4.012>
- Lee SY, Jung CS.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type, career choice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Wellness*. 2017;12(4):143-152. <https://doi.org/10.21097/ksw.2017.11.12.4.143>
- Park GO, Kim YS.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elf-concept,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3;15(4):2149-2163.
- Jo GY, Park HS.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1):160-169. <https://doi.org/10.5762/KAIS.2011.12.1.160>
- Kim GH, Kim KH.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in first year wome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2;21(2):149-157. <https://doi.org/10.12934/jkpmhn.2012.21.2.149>
- Dik BJ, Duffy RD.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009;37(3):424-450. <https://doi.org/10.1177/0011000008316430>
- Duffy RD, Allan BA, Autin KL, Bott EM.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it's not about having it, it's about living i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13;60(1):42-52. <https://doi.org/10.1037/a0030635>
- Steger MF, Dik BJ, Duffy RD. Measuring meaningful work: the work and meaning inventory (WAMI).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12;20(3):322-337. <https://doi.org/10.1177/1069072711436160>
- Hwang JW, Kim KH. The relationship between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9;10(1):57-71.
- Wong CS, Law KS.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2002;13(3):243-274.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Salovey P, Mayer JD.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1990;9(3):185-211.
- Ruiz-Aranda D, Extremera N, Pineda-Galán C. Emotional intelligence,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in female student health professionals: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4; 21(2):106-113. <https://doi.org/10.1111/jpm.12052>
- Csikszentmihalyi M.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990;24(1):93-94. <https://doi.org/10.1080/00222216.1992.11969876>
- Nam SH. Major commitment and work values.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5;19(1):223-242.
- Hou MH, Kim YH. Medi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majors and major commi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es of choosing majors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Tourism Research*. 2018;43(1):275-299.
- Song CH.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work flow, perceived value of work,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company employees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16. 89 p.
- Suh EK, Koo JS.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1;25(1):95-113. <https://doi.org/10.21193/kjspp.2011.25.1.006>
- Dik BJ, Eldridge BM, Steger MF, Duffy R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and brief calling scale (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12;20(3):242-263. <https://doi.org/10.1177/1069072711434410>
- Shim YR, Yoo S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K).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2;24(4): 847-872.
- Jung HW.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aster's thesis]. [B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7. 181 p.
- Jackson SA, Marsh HW.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a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996;18(1):17-35.
- Kim HJ.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66 p.
-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6):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27. Ju ON, Mun SY. A study on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social welfare workers on their happiness: with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ustomer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017;31(1):167-195. <https://doi.org/10.18398/kjlgas.2017.31.1.167>
28. Oh EJ, Lee MH, Ko SH.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y on the facilitative communication ability of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6;25(4):283-293.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4.283>
29. Slaski M, Cartwright S. Emotional intelligence training and it's implications for stress, health and performance. *Stress and Health*. 2003;19(4):233-239. <https://doi.org/10.1002/smi.979>
30. Peterson C, Park N, Seligman MEP.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ull life versus the empt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05;6(1):25-41. <https://doi.org/10.1007/s10902-004-1278-z>